

# 정부, 2010년 CFCs 사용 전면금지

환경부, 대기 중 농도는 줄어 ... 2002년 이래 CFCs-11·113 감소세

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(염화불화탄소)의 대기 중 농도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가 2004년 3/4분기 대기 중 염화불화탄소(CFCs) 농도를 측정한 결과, CFCs-11, CFCs-113은 2002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CFCs-12는 약간 증가했고, CFCs-114는 2002년 이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.

CFCs-11 농도는 2002년 265.1ppt, 2003년 250.4ppt, 2004년 1/4분기 248.2ppt, 2/4분기 251.3ppt를 기록한데 이어 3/4분기에는 250.3ppt였다.

대기 중 CFCs 농도 측정결과 (단위: ppm)

구 분	CFCs-11	CFCs-12	CFCs-113	CFCs-114
2002	265.1	549.3	87.0	ND
2003	250.4	543.5	81.7	ND
2004.1Q	248.2	539.7	79.9	ND
2004.2Q	251.3	531.0	78.6	ND
2004.3Q	250.3	547.4	77.2	ND

† ND(Not Detected)=불검출

CFCs-113도 2002년 87.0ppt에서 2004년 3/4분기에는 77.2ppt로 줄어든 반면, CFCs-12는 2002년 549.3ppt에서 2004년 2/4분기에 531ppt까지 줄었다가 3/4분기에는 547.4ppt로 다시 늘어났다.

국내에는 <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>과 환경부 훈령에 따라 제주도 북제주군 환경면 고산리 지구대기측정망에서 대기 중 프레온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제조·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4/11/08>